

서울숲 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홍보스텝 장경원 인터뷰
서울숲을 보는 '시선'을 만듭니다!

서울숲 녹지 매니저 신지은 인터뷰
서울숲의 '첫 인상'을 만듭니다!

서울숲 소식

2021, 그대가 그린, green 워딩
김훈, 홍미나 부부의 편지



서울숲을 보는 ‘시선’을 만듭니다!

마케팅팀 홍보스태프 장정원 △

✍ 먼저 자기소개를 해 달라

2021년 4월부터 서울숲공원 마케팅팀에서 영상촬영과 편집, 그리고 SNS 채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원이다.

✍ 어떻게 서울숲에서 영상홍보를 하게 되었나?

본래 전공은 경영이었다. 특히 광고 마케팅을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기획한 걸 단순히 문서로만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영상편집을 독학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개인채널도 만들어서 운영했다. 서울숲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건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광고회사는 대충 어떤 업무를 할지 예상도 되고 정해진 업무들이 있는데, 서울숲공원은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 보였다.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러 서울숲에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동·식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좋아하긴 해서 여기서 일하는 게 즐거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서울숲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일했다.

✍ 서울숲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영상을 총 65편 정도(10월 21일 현재) 제작하신 것 같다. 그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영상이나, 재미있었던 장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촬영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건 ‘야간 숲 탐험 LIVE’였다. 팀원들과 밤에 출몰하는 곤충들을 찾아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고, 발견했을 때 서로 기뻐하던 게 생각나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웃기다. 반면 의미 있던 작업물은 ‘순환하는 서울숲’ 시리즈이다. 영상 촬영할 때 서울숲의 식물 부산물을 모아두는 곳을 방문했는데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육묘장도 그렇고 생태숲도 그렇고 서울숲에 방문객으로 왔을 때는 모르던 공간이다. 특히 버려지는 식물 부산물,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울타리로도 만들어지고 퇴비로도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는 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준 계기가 됐다. ‘야공원의 관리라는 게 그냥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하는 건 아주 일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 영상 작업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운영도 맡고 있는 걸로 안다.

입사해서 처음으로 한 게 채널 재생 목록을 개편하고 채널아트도 바꾸고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채널 정리를 하는 거였다. 그리고 제목을 다는 형식을 바꾸고, 썸네일 디자인도 새로 했다. 입사 당시, 코로나로 우선 영상을 만드는 게 시급해 채널을 열기는 했지만 일관된 기획 하에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들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 우선 vlog 형식이 많았고 몇몇 프로그램 영상들이 제작되어 있었다. 이런 콘텐츠는 필요하면 제작하되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하기 전에 공원에서 뭘 볼



△ ‘야간 숲 탐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다.

수 있는지, 이런 걸 검색할 거라고 생각해 그에 맞게 채널을 개편하고 영상 콘텐츠도 기획했다. 검색을 주로 유튜브에서 하는 시대니까, 지금 서울숲에서 어떤 동식물을 볼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진행되는지 같은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서울숲은 당신과 함께 자랍니다.'라는 조직의 미션에 맞춰 서울숲 유튜브 채널도 자라나는 이미지, 어떻게 보면 어린 이미지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채널아트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했다. 물론 운영하면서는 그때그때 찍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해서 욕심만큼 다양한 동·식물 영상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무엇을 찍고 만들던 의도와 취지를 전달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 서울숲공원 유튜브 채널

📎 하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성과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빨리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만들 수 있구나.'를 느껴 뿌듯했던 경험이 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공원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어린이날 이벤트도 취소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빨리 준비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때 특집 영상을 4개를 만들어야 했는데, 남은 기간이 2주 밖에 안됐다. 촬영하고 편집만 1주일 안에 4개를 해야 했던 거다. 티는 안냈지만 진짜 멘붕이었는데 팀원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어느 정도 볼만한 영상들이 일정에 맞춰 나올 수 있었다. 보신 분들도 잘 봤다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한 걸 보면서 뿌듯했다. 방송사 몇 군데에서 취재도 왔었고, 특히 함께 지켜보던 동료들의 피드백이 좋아서 더 뿌듯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사실 다른 공원에 비하면 따로 홍보 예산, 외주 제작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닥에서 시작해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다. 꾸준히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만으로 구독자도 시청시간도 꾸준히 함께 성장했다.

📎 마지막으로 서울숲공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유튜브 채널 관리, 영상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하면서 주 2개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해왔다. 그래서 예정된 행사, 프로그램 등을 찍고 편집해 올리다보니 처음에 계획한 걸 많이 못했다. '이거 재미있겠다.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도 서울숲을 관리하는 과정에 관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원이 만들어지면 '어? 여기 뭐가 바뀌었네?' 정도만 인지하고 그냥 스쳐 지날 수 있는데, 만약 영상을 시청하고 방문한다면 '이 정원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뭐 어떤 노력이 있고, 만든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숲공원을 좀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데 서울숲 유튜브 채널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기쁠 것 같다.



서울숲 녹지 매니저 신지은 인터뷰

서울숲의 '첫 인상'을 만듭니다!



△ 녹지 1구역팀 신지은 매니저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서울숲공원에서 2019년 7월부터 구역1팀에서 녹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지은 매니저다. 사실 처음에는 2019년 1월에 마케팅팀 스태프로 7개월 정도 홍보 관련 업무를 했는데, 본래 전공이 조경이라 서울숲에서 녹지 매니저 채용공고가 났을 때 지원해서 녹지 매니저로 일하게 됐다.

🔪 녹지는 다들 구역을 맡아 관리하는 걸로 안다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소개도 해 달라.

1구역 녹지에서 내가 맡은 대표적인 공간은 주로 공원 출입구 1~3번, 메인 출입구에 위치한 정원과 화분들이다. 설렘정원, 군마상,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 화분 등이 있다.

🔪 주로 출입구쪽의 화분이나 화단이다. 아무래도 공원에서 가장 처음 노출되는 장소들을 관리하는 것 같다.

맞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을 만나는 첫 인상이 되는 거라 부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곳이라 자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가능한 화려하게



△ 서울숲공원 방문자센터 옆 사각 화분

꾸민다. 관리를 하면 하는 대로 확 티가 나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그것도 확 티가 난다. 자주자주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 많고, 관수도 더 자주 해줘야 하고, 주로 일년초를 심기 때문에 식물도 빨리 교체한다. 일년초는 짧게 확 폼다가 금방 저버리기 때문에 식물을 갈아줘야 하는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 공원 입구에 일년초를 주로 심는 이유가 화려한 꽃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

그런 셈이다. 화단이나 정원에는 주로 다년생을 많이 심는데, 특히 출입구 쪽 화분들은 일년초만 심는다. 한꺼번에 폼다가 한꺼번에 지는 식물, 그 계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느낌으로 식물을 배치한다. 다년생들은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흐름이 있다고 하면, 출입구쪽 화분들은 한 장으로 찍어서 전시해놓은 것처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런 면이 부분적으로만 보면 자연스럽게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방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꽃들이니까 공원의 생동감? 공원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공원 전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원 전체에서도 거의 출입구 쪽에 주로 일년초가 사용된다. 다른 공간은 대부분 다년생이다.

🔪 다년생에 비해 일년초는 뭔가 '화려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못함',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건 아니다. 각자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년초는 씨앗 발아가 잘 돼서 씨를 받아 또 꽃을 또 피우기도 한다. 또, 다년생은 1년 묵어야 꽃을 피우는데 일년초는 두 달이면 다 핀다. 그리고 보통 일년초들은 꽃을 오래 볼 수 있다. 1년에 꽃을 두 번 볼 수 있는 초화들도 있다.

🔪 관리하고 있는 화단과 화분에 심는 식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봄에 대표적인 꽃으로는 데이지나 라넌쿨러스.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이런 화려한 봄꽃들이 있고, 여름에는 햇빛에 강한 식물들을 주로 심는 편이다. 잎이 타거나 햇빛에 약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에는 건조에 강하거나, 햇빛에 강한 식물들을 심는 편이고, 대표적으로는 베고니아, 아게라툼. 임파첸스, 백일홍 같은 게 있다. 겨울에는 거의 꽃이 없다보니깐 잎이 예쁜 꽃양배추 같은 걸 심는다.



△ 서울숲공원 군마상 화단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숲을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게 되면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대체로 군마상인 것 같다. 서울숲의 오랜 랜드마크이자 포토존인데, 군마상 화단이 식물의 종류와 수가 많고, 언제나 화려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군마상 화단은 서울숲이 생겼을 때부터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공간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심어진 많은 식물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심지 않아도 철이 되면 다시 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더 촘촘하게 식물을 심는 것도 있다. 또 군마상이 역동감 넘치는 동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말이 뛰어가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퍼플물리, 파니쿰 같은 그라스 종류를 많이 심었다. 주로 바람에 반응하고 흔들리는 그런 식물들이다. 그 옆에는 그라스와 어우러지는 초화류를 심는다. 역동적인 말의 느낌을 살리고 조화로운 화단으로 가꾸기 위해서 화단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외에 군마상을 중심으로 주변에 행잉화분도 있다. 군마상 양쪽으로

가로등에 걸려있는 화분을 행잉화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로 일년초를 식재하고, 계절마다 식물을 교체해주고 있다.

이야기한 대로 공원 입구 쪽 화단과 화분은 자주 식물이 바뀌고, 그 식물의 가장 예쁜 때를 전시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맞다. 그래서 특히 식물 이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식물을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보는 분들이 이게 무슨 식물인지 모르면 보는 재미나 의미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식물 표찰을 만들었고 새로 심어지는 거의 모든 일년초에 이름표를 달아줬다. 이게 나름대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인 것 같다. 말하자면 '이 예쁜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라고 알려주면서 조금 더 서울숲 식물에 애정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꽃이놓은 표찰들을 보고 '아 이거 무슨 꽃이구나' 하는 거를 볼 때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방문객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서울숲은 점점 일년초의 비율을 줄이고 관리효율이 높은 다년생을 더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꽃만 보는 게 아니고 씨앗부터 시들어 사라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다 본다는 게 최근의 정원 트렌드와도 맞고, 생태적으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다. 공원 경영도 그런 식으로 저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식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년생 중에서도 가능한 예쁜 꽃을 길게 볼 수 있는 식물을 도입하고, 꽃이 길고 화려하게 피는 일년초는 수를 줄이되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포토존 같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디자인하려고 한다. 지금 국화꽃 화분을 잔뜩 가져다 놓은 포토존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바닥분수 앞, I SEOUL U 조형물 앞을 국화로 화려하게 꾸미고 포토존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녹지가 아니라 포장된 곳이라서 화분을 이용했고, 공원 입구부터 화려한 색으로 방문객을 맞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국화는 또 꽃이 굉장히 길게 핀다. 그래서 더 오래, 가을에 어울리는 풍경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사계절 골고루 볼거리가 다양하고 아름답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 오셔서 충분히 즐겨주시기를 바란다.



2021, 그대가 그린, green 웨딩



김훈, 홍미나
부부의 편지

2021년 10월 2일과 3일, 총 네 커플이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대가 그린, green 웨딩은 자연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결혼식을 표방하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사연 공모를 통해 총 7쌍의 커플을 선정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2021년 10월 3일,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훈, 홍미나 부부가 결혼식의 소감을 밝히는 편지를 서울숲에 보내주어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숲과 함께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서울숲과 함께 오래오래 푸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가꿔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숲에서 10월 3일 결혼식을 올린 김훈, 홍미나 부부입니다.

처음 모집공고를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쓴 게 엇그제 같은데 결혼식을 올린지도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먼저, 저희의 결혼식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숲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혼식 전전날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10월 3일은 날씨요정이 도와줘서 잘 치를 수 있었어요.

멋지게 꾸며주신 아름다운 설렘정원 웨딩장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주신 하객이름이 적힌 돌멩이, 날씨만큼이나 화사했던 꽃 화분과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양증맞은 답례품 떡까지...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현민주 담당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 지원서를 썼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오후에 선정 연락을 받고 기뻐하던 그 순간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살면서 이런 행운이 다시 있을까요?

제가 쓴 사연이 1등으로 뽑히고 모두가 꿈꾸는 멋진 가을날에 서울숲에서 결혼식을 하다니 말이에요!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신랑은 얼떨떨해했고, 친정 부모님은 진짜 너무 기뻐하셨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친환경웨딩에 맞도록 셀프로 준비해주셨고, 당사자인 신랑신부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하객 분들이 화환 물어보실 때마다 친환경웨딩이라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요.

비록 준비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촉박한 일정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바빴던 결혼식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만들어가는 셀프웨딩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살면서 맞춰가고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저희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누가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일엔 정말 정신없어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지인들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순간 후기를 쓰면서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노래가 생각나는 가을날, 그날의 순간이 필름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대기실에서 설렘정원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결혼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영상과 사진 보여줬더니 한국 맞냐고 하더라고요. 또, 서울숲에 여러 번 왔지만 이런 공간, 이런 결혼식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아직 결혼 안한 자녀가 있는 어른들은 이런 결혼식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한 거냐?'고 여쭙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웨딩이 너무 예쁘고 특이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린웨딩의 소감을 단 몇 장으로 적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결혼식 문화가 바뀌는데 그린웨딩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정성껏 써내려갔던 저의 지원동기 앞으로도 마음에 새기며, 10월 3일,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결혼식을 평생 기억할게요. 아마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하객분들, 지나가던 시민분들께도 예쁜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지원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간 결혼식이기에 아마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부부로서 시작하는 소중한 첫 발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품성함 속에서 저희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홍미나 부부 올림-



서울숲 소식지 구독자 설문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식지를 읽은 소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숲 소식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걸음씩 안전하게
새로운 일상이 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영업시설
운영제한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해제

※4주(연휴) + 2주(명절) 간격으로 전환

- 1. 영업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허용/ 2차부터는 모두 해제)
- 2. 대규모 행사·집회 가능**
(1차: 100명 미만/2차부터는 접종 완료자만일 경우 제한 해제)
- 3. 사적 모임 제한 완화**
(1,2차: 10명까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포함)
- 4. 미접종자 포함 시 종교활동 인원 50%**
(접종 완료자만일 경우 제한 해제)

※확진자 수 등의 증가로 의료체계 위협 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비상계획 실시)